

■ 李대통령·친이계 개헌론 확산 배경

“박근혜 배제한 권력 연장용 아닌가”

“세종시 돌파구 위한 국면 전환용” 의혹도
야권 “논의 필요하지만 시점·주체가 문제”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친 이명박)계가 개헌론을 확산시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재오 국무총리와 같은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동시에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제한적 개헌’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거론했고, 이 위원장은 ‘연내 개헌’이라고 한 밭 더 나갔다.

다음날인 26일,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안경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 거쳐서 내각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본다”고 개헌의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처럼 여권 주류 측에서 개헌론을 접하면서 나오자 각종 해석이 나오는 동시에 여권과 친박(친 박근혜)계에서는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표 견제를 통한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을 제기하면 가장 부담스런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라며 “한나라당 수뇌부와 이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은 박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친이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도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여권 주류의 개헌 제기에 대해 “친이과의 장래를 위한 포석”이라며 “친이계가 구성하는 개선안은 한나라당의 집권은 유지하되 박근혜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무력화하자는 거다.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으로 박근혜 없이 집권을 하거나, 혹은 박근혜를 행정부 수반으로 두더라도 그 권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의 권력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풀이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권에서 친이명박계네 친박근혜계네 하며 싸우는 것을 개헌논의로 물꼬를 틀려는 것이 아니냐”며 “지방선

실제로 여의도 정부에서는 개헌을 친이계가 언젠가 꺼내들 것으로 예상했던 카드로 평가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수도 있는 레임덕을 계산하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 것도 세종시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개헌론을 빼는 것. 세종시 논란이 벽에 부딪히자 그 돌파구로 개헌을 들고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권에서 친이명박계네 친박근혜계네 하며 싸우는 것을 개헌논의로 물

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 분위기를 흐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진중권씨도 “세종시 출구전략이다. 즉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로 끝나거나,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MB(이명박 대통령)과 친이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때 바로 개헌안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여 계속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개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제기 시점과 주체가 문제”

라며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연아의 금메달 획득 소식에 축하 박수를 치고 있는 국회의원들.

MB “세종시 지지부진땐 중대 결단”

“절차적 추진”… 국민투표 시사 관측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를 “절차적 추진”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언급은 세종시 수정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논란만 확산할 경우 세종시 원안의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대통령은 만약 중대 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 결단의 내용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이 같은 언급은 세종시 수정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논란만 확산할 경우 세종시 원안의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주 중 충남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자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소신”이라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조건없는 지원을”

광주시장 예비후보 공동대응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이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없는 금융 지원 촉구’ 등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민주당 양형일·전갑길·정동채 후보, 진보 신당 윤난실 후보, 무소속 정창용 후보 등 5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하고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건없는 자금 투입’과 ‘노동자, 협력업체 일방적 협생 전가 반대’를 골자로 하는 ‘합동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예비후보들은 2일 오전 11시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지점장에게 합동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회동을 제안한 윤난실 후보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12월~2월 급여와 상여금을 받지 못해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고 협력업체 100여 곳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다”며 “앞으로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해갈 것”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체에 일방적 협생 전가 반대’를 골자로 하는 ‘합동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예비후보들은 2일 오전 11시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지점장에게 합동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회동을 제안한 윤난실 후보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12월~2월 급여와 상여금을 받지 못해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고 협력업체 100여 곳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다”며 “앞으로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해갈 것”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건없는 자금 투입’과 ‘노동자, 협력업체 일방적 협생 전가 반대’를 골자로 하는 ‘합동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예비후보들은 2일 오전 11시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지점장에게 합동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과 정동영·주승용·우유근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장 변호사는 이 책에 지난 시절의 역경과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 등을 소개했다. 또한, 힘없는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함께 담았다.

공장매매

■ 위 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 지
6,345㎡(1,920평)
■ 건 물
1,685㎡(510평)
■ 전 기
계약전력 200㎾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전기설비[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종 목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좌제

- 대상 : 실업자 약간대생 등 - 개강 : 3월 2일
- 현재 접수 中, 선착순 00명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약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랍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 역
특 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 알선(입영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습 및 설명회

광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
· 비만침법/이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 중의침구학/장상론/특증침법/중의방약학/
· 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 (해외사용가능)

요녕중의약대학 석박사학위과정

· 자격 : 대졸이상, 전문과정 수료생 · 수업기간 : 3년
· 입학 : 매년 3월, 9월 · 주요전공 : 중의기초이론/

침구추나학/중의골상학/중서의결합임상/중약학

* 치료 및 치료상담은 개인 치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연설 집중훈련)

1 교육목표 :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 하고 싶은 사람

3 강의요일 및 시간
· 이전(매주 금요일) 19:00~21:00

4 교육기간 : 2010년 3월 6일 ~ 6월 25일
※ 교육요령 :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5 교육과정 :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북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6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0년 1월 25일(월) ~ 3월 3일(수)

· 등록시간 : 월 ~ 금(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 (호심관 4층)

7 등록방법(수강료) : 200,000원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8 수료 후 특전 : 수료증 수여(종정명의),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 선거연설원 파견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9 담당교수 : 한 상 택

· 한국응변연설인증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설원 교수

· 대통령상 전국응변대회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시대회 대회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인)

· 시민법인 한국응변인협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 말하기 교본, 스피치 응변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HP: 010-5692-9998